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 해단식 개최

제과 분야 서정웅, 김영훈, 김영모씨 표창

〈취재·허미경 / 사진·여상현〉

지난 9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강당에서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및 선수단 해단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대회 통산 14번째 종합 우승을 이뤄낸 각 직종 대표 선수와 지도자, 심사위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두달여만에 다시 한번 그날의 기쁨을 회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생 갈렌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 우수상 8개를 획득해 기술력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떨친 바 있다. 정식 직종으로서 2회째 대회가 진행된 제과 직종에서는 유럽의 강호들을 꺾고, 한국의 김영훈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날 해단식은 우승기를 봉납하고 입상 선수, 지도 교사 등 80여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과 분야에서는 코른베르그과자점 대표 서정웅씨가 대통령상을, 김영모과



자점의 김영훈씨가 석탑 훈장을,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이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해 세계 제과기술업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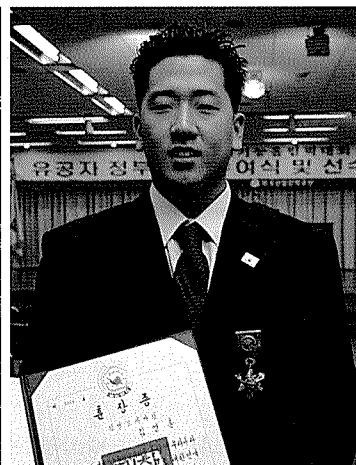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술인들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인재"라며 선수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선진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이를 낭비 없이 작업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술 연마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추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선수들의 상금, 포상을 확대해 사회 전체가 기술인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것을 밝혔다. 더불어 이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해 현장 진출 또는 창업시에 보조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코른베르그과자점 대표 서정웅씨.



▲ 석탑 훈장 수상의
제과 직종 한국 대표 김영훈씨.

국제기능올림픽 훈련원생 모집 2005 헬싱키 대회 대비해 기술 연마

(사)대한제과협회는 제38회 국제기능올림픽 헬싱키 대회(2005년) 훈련원생을 모집한다. 2년전 서울에서 제36회 대회를 개최, 국내에도 많은 흥보가 된 바 있는 국제기능올림픽은 70년대 이후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한 의미깊은 국제 대회다. 특히,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2회째 실시된 제과 직종은 37회 대회에서 첫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제38회 대회가 열리는 2005년을 대비, 제과 직종과 제빵 직종의 출전을 희망하는 예비 기술인들을 모집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미래의 제과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사전 훈련을 통해 후보 선수의 저변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 자격 요건 : 1988년~1982년 출생자로서 제과 기술 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자.
- ▲ 모집 인원 : 6명.
- ▲ 선출 방법 : 1차 면접 및 인성검사 / 2차 실기 기능 시험
- ▲ 훈련 방법 : 주 4~5일 현장 실무 교육(지정 업체) 주 1~2일 합숙 훈련(훈련 장소)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 접수기간 : 2003년 12월 20일 오후 5시까지
- ▲ 접수처 : (사)대한제과협회(02-2273-1830)
- ▲ 담당자 : 기획부 강영옥 대리

월드페이스트리컵 결산 무료 세미나 개최

월간 베이커리 10주년 기념, 6개 지역에서 진행

(사)대한제과협회는 <월간 베이커리> 창간 10주년을 기념하고 2003년 월드페이스트리컵 출전을 결산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프랑스에서 열린 월드페이스트리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 3인을 초청, 각각 설탕 공예, 초콜릿 공예, 아이스카빙 등 공예 작품을 실연하고 제품의 배합도 공개할 예정으로 많은 기술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10월 19일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의 부대 행사로 처음 시작돼 11월 15일까지 6개 도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각 담당 지회로 하면 된다. <허미경>

일자	지역	시간	문의처	대상 지역
10월 19일	서울 코엑스	10:00~	02-2273-1830	서울
11월 11일	경기 - 수원	15:00~	031-232-0100	경기, 인천
11월 12일	강원 - 강릉	15:00~	033-241-9222	강원
11월 13일	충청 - 천안	15:00~	041-561-4029	충남, 충북, 대전
11월 14일	전라 - 전주	15:00~	063-232-6191	전남, 전북, 광주
11월 15일	경상 - 대구	15:00~	053-353-6266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2회 전국지회장회의 개최

SIBA 대회 및 하반기 사업 협의



지난 9월 18일 (사)대한제과협회는 29개 지회의 지회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회 전국지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지회 지회장은 제11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를 비롯해 하반기 추

진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우선 10월 16일부터 개최되는 2003 제11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의 진행에서 4일간 개최되는 본 행사는 물론 이에 앞서 마련되는 전야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또한 11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월간 베이커리>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도 진행 방식과 부대 행사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점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 및 수재민 위로 등 세부 방침도 정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허미경>

경상남도지회 태풍 매미로 인한 손실 현황 집계 마산시지부 8개 업소 · 2억4천만원으로 피해 가장 커

지난 12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들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해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3조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태풍 매미가 직접적으로 상륙한 경상남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이 지역 회원 업소 또한 침수로 인한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남 일대의 손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부	침수	정전	파손
창원지부		전 업소(120) / 1,000만원	30업소 / 2,700만원
진해지부	4업소 / 8,000만원	전 업소(35) / 1,000만원	30업소 / 3,200만원
통영지부	5업소 / 1억	전 업소(38) / 800만원	전 업소(38) / 4,000만원
사천지부	6업소 / 1억2,000만원	전 업소(20) / 300만원	전 업소(20) / 2,000만원
진주지부		전 업소(100) / 900만원	70업소 / 2,700만원
마산지부	8업소 / 2억2,000만원	전 업소(110) / 2,000만원	80업소 / 7,000만원
김해지부		전 업소(80) / 3,000만원	70업소 / 5,000만원
밀양지부	2업소 / 4,000만원	전 업소(39) / 800만원	20업소 / 1,200만원
거제지부	피해 규모 파악 불가		
소계	5억8,000만원	9,800만원	2억7,800만원
총액		9억5,600만원	

자료 제공 : 경남도지회

마산시지부 태풍 '매미' 피해 지역에 빵 지원 수재민 · 자원봉사자에 전달...한 차례 더 실시 계획

마산시지부(지부장 정창국)는 태풍 '매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해 지역에 '사랑의 빵'을 기증했다. 정창국 지부장을 위시한 마산시지부 임원들이 힘을 모아 1,800개에 이르는 빵을 마산시 재해 대책본부 측에 전달한 것. 이는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과 가재도구의 침수로 취사가 불가능한 수재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돼 마산시청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마산시지부는 수해 복구가 아직 50%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황을 지켜본 후 이와 같은 대규모 빵 지원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부 차원의 모금을 통해 수재의연금을 기탁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정창국 지부장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인자산정"이라며, "이번 빵 지원으로 마산시민들이 우리 제과업체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랑의 빵'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마산시지부 회원 업소 8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대부분 업소에서 영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남원시지부 하계단합대회 개최 운동을 통해 회원간 우호증진 계기 마련



남원시지부(지부장 한계수)가 지난 8월 19일 남원산성공원에서 하계친목단합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이번 단합대회는 운동을 통해 회원간의 우호증진을 꾀하는

자리가 됐으며 회원들은 단합된 힘으로 지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